

# 司書의 姿勢確立에 관한 小考

金 萬 碩  
弘益大學校 圖書館 司書

## 1. 序

圖書館은 오늘 날 教育的으로 必要要件의 機關으로서 이젠 無視할 수 없는 機關임을 自他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初等教育 機關에서 부터 高等教育 社會 教育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은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圖書館이 그저 藏書와 建物施設만 갖추었다고 제 구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勿論 財政과 人事 問題가 必然의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圖書館 뿐만 아니라 一定한 組織을 가진 1個 機關을 運營함에 있어서는 그 種類 如何를 不問하고, 經營者 또는 行政家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곧 機關士가 있어야 機關車가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人間의 두뇌와 손에 依해서 움직여 지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機關士의 姿勢이다. 이른바 乘客을 安全하게 輸送해야 한다는 義務와 精神으로 그리고 自身의 職業에 對한 矜持를 가지고 보람과 希望을 안는 마음 가짐이다. 圖書館엔 司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司書는 利用者를 爲해서 무엇을 어떻게 奉仕하며 어떠한 마음 가짐으로 職務를 수행하고 矜持와 보람을 가지며 임할 것인가 하는 精神 姿勢의 確立을 前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施設이 어떻게 報酬가 어떻게 等等 不滿을 갖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自身의 부끄러움 없는 姿勢가 確立된다면 다른 不滿은 점차 하나 둘씩 단계적으로 解決될 것이며, 안될 때엔 과감히 打開해 나갈 수 있는 일이며 開拓하는 活力도 솟아 오를 것이다.

오늘 날 圖書館만큼 成長 階梯이 느린 곳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도서관의 긴 역사에 비해서 발전은 둔했음은 分明하다. 或者는 도서관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歷史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뚜렷하고도 눈부시게 刮目할 만한 發展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勿論 韓國의 特殊한 歷史의 背景의 영향때문이기도 하겠으나, 古今에 이르도록 國家의인 큰 礎石이 없었고, 凡國民의인

認識도 不足했으며 심지어 一線의 圖書館人들 自身에 이르기 까지 뚜렷한 革新이 없었던 것은 많은 弱點이 있었음에 어쩔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배움을 수 없는 理由의 하나로는 民衆들과 密接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利用者와의 親密度가 낮음으로써 아직도 그들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 不足은 如前하다고 본다. 그러면 圖書館의 劃期的인 發展을 爲해서는 무엇이 急先務인가를 熟考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圖書館 發展 問題는 圖書館이라면 모두가 責任을 지야 한다. 圖書館은 圖書館 스스로가 그 發展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보다 能動的으로 보다 積極的으로 全 圖書館人은 圖書館의 發展을 爲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더 깊이 더 앞서서 할일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선 그 基本的이고 가장 根源的인 問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곧 司書들의 姿勢 確立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에 進出해 있는 司書들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主體의식이 서 있지 못한 것 같으며 그저 無事安逸主義式으로 흐름에 휩쓸려 갈 뿐, 未來를 爲한 어떤 確固한 目標이 不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現實속에서 벗어나 司書들은 보다 傳統的이고 歷史的인 主體가 서 있는 韓國의 圖書館人의 姿勢를 갖추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를 爲해 努力해야 될 것이다. 곧 眞正한 社會 奉仕者로서의 素養을 기르고 重要한 使命感을 깊이 認識해서 圖書館界의 革新的인 氣運을 일으켜야 될 것으로 본다.

## 2. 司書의 姿勢와 確立

모든 圖書館人은 圖書館의 發展에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序論에서 밝힌 바 있다. 한번쯤은 反省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可能하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過去를 反省하며 未來를 設計하고 開拓해 나가는 姿勢를 모두가 갖추었다면 아마도 圖書館의 發展은 훨씬 加速度로 急成長할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館의 發展에 對한 遲延의 責任은 우선 첫째로 圖書館人의 自身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圖書館이 恒時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탄하기에 앞으로 全 圖書館人은 無

條件 한번만이라도 反省해 보는 姿勢를 가져 볼 일이다. 主體對象이 무엇이든 相關할 것 없이 發展의 여부는 먼저 人力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며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이상 구배여 도서관 발전만 느리고 침체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未來는 언제나 밝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할 것이다.

司書가 전문직이다 아니다 알기 앞서기 이전에, 司書를 教授職대우로 해야 된다 안된다 하기 이전에 도서관도 국가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등등 甲論乙駁의 혼란된 論難을 거듭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할 것이 아니라 圖書館은 學問의 체계를 確立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 學問을 志願하려는 지망생과 그리고 연구과정에 있는 豫備司書들의 자세나 이미 배출된 司書들의 자세 등 모두가 진정한 개개인 人生觀確立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사서 哲學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학은 圖書館學으로서의 獨立된 學問으로서 뚜렷한 學問哲學이서야 될 것이며 이를 研究하고 學問하는 전공 학생들에게도 이를 우선적으로 理解시켜야 될 것이다. 소위 奉仕를 철칙으로 하는 의사, 간호원, 민중의 지팡이라 칭하는 경찰 등의 예처럼 도서관인 역시 奉仕精神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 資格證을 버개삼아 가만히 눈 감고 들어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빛이 發散하고 진정 價置있는 資格證이 될 수 있도록 司書들 自身이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 圖書館界에서도 舊式的 無秩序하고 해묵은 形式에 얽매어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참신한 圖書館人인이 힘을 하나로 뭉쳐서 韓國圖書館의 일대 혁신의 旋風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이다.

圖書館의 哲學은 곧 司書哲學이다. 司書哲學은 特定하게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고 規定짓기엔 筆者로서는 감히 내세우기 두렵다. 다만 司書哲學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司書가 專門職이라면 어떤 뚜렷한 哲學的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할 것이며 學問적으로도 定立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司書들 個個人이 그들의 人生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 司書들로서의 哲學을 심어야 할 것이다. 元來 圖書館은 圖書와 密接한 것이다. 密接한 程度가 아니라 一心同體인 것이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날 수 없듯이 司書 또한 圖書館을 떠날 수 없겠다. 책이란 人間의 두뇌를 쉬지않고 回轉시켜 줌으로써 무언가 하나라도 머리속에 남겨 주며 또한 知識의 寶庫이다. 이러한 책들이지만 언제나 우리들 人間 생활 주변에 存在해 주지만도 않는다. 즉 直接 所有할

수 있거나 구할 수 있거나 또 그 知識들이 쉽사리 손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知識을 구하는 利用者와 圖書와 各種 文헌情報나 資料 등의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架橋역할을 하는 이른바 案内者가 곧 司書라 할 수 있겠다. 人間은 배움에 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도 무언가 알아야 배울 것이며 또 반면에 알려면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과정은 혈액순환처럼 끊임없이 가고 오고, 가고 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 형제, 스승과 제자, 선배 후배, 선진국 후진국 등과 같이 人間과 人間, 社會와 社會, 國家와 國家間的 相互關係 등 모두가 聯關된 끄나풀 속에서 갖가지 知識과 情報 등을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다. 곧 어떤 한사람이라도 自意든 他意든 意識의 이든 無意識의이든 모두가 이런 순환속에서 사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의 지식 전달 方法과 手段은 다양한 것이다. 그 代表的인 것이 組織된 1個 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일 것이며 좁은 意味에서는 圖書資料와 利用者 사이에 司書가 存在하는 것이겠다. 따라서 司書가 重要な 案内役을 맡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알리고 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잠재된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안내해야 될 主要한 使命感을 띠고 있는 것이다. 故로 안내역을 제대로 해 내기 爲해서는 誠實한 忍耐과 투철한 奉仕 精神 등을 갖출 것을 前提로 한다. 이러한 素養을 지닌 司書들은 그들대로의 진정한 哲學觀을 定立시켜야 한다. 어설피게 무슨 哲學이나 하든지, 또 나 하나쯤 程度로 언제까지나 미온적으로 처신해 나간다면 司書의 無能은 勿論 圖書館의 대대적인 發展은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저수지의 물을 쌓을 때 물의 種類가 크고 작용에 관계 없이 그 수요는 각국의 나뉠대로 所用되며 필요한 價置가 存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어떤 하나를 하잘것 없는 작은 돌맹이라고 輕視하게 된다면 그 돌맹이만한 구멍이 생김으로써 독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인 모두는 어느 원대한 目標를 향해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司書 한사람 한사람에서부터 全體的으로 證지와 信念으로 철저한 奉仕精神을 가지고 不足함이 없는 업무 수행에 한층 더 努力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哲學이 선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圖書館人은 그들대로의 集團 또는 機關 등의 目標를 設定해서 그 座標를 向해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歷史 文明의 계승과 文化전달의 보이지 않는 안내자라는 철학관이 선 모든 司書는 恆時 평범한 案内者가 되는데 유의해야 될 것이며 정신적 자세의 확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行動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다음엔 철학관에 연관시켜서 도서관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